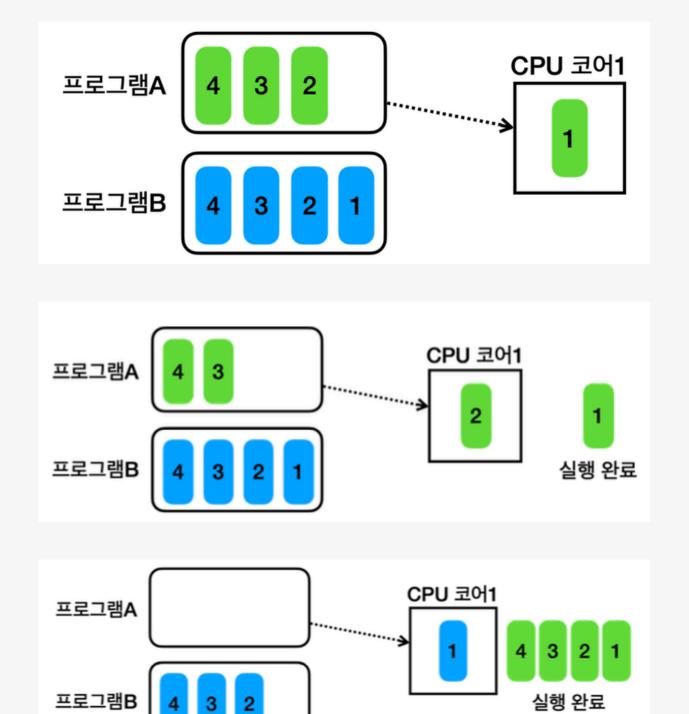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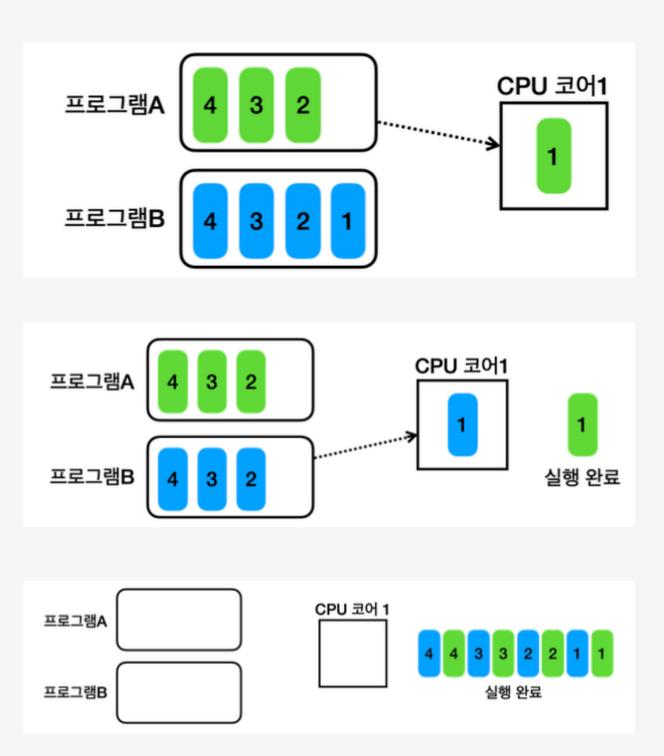
(화 1주차 스터디

목차

- 멀티태스킹과 멀티프로세싱
- 프로세스와 스레드
- 스레드와 스케줄링
- 컨텍스트 스위칭
- 스레드 생성
- 스레드 생명 주기
- join
- 인터럽트

단일 프로그램 vs 멀티 태스킹





멀티 프로세싱 vs 멀티 태스킹

멀티프로세싱은 하드웨어 장비의 관점이고, 멀티태스킹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관점이다.

멀티 프로세싱

- 여러 CPU(여러 CPU 코어)를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
- 하드웨어 기반으로 성능을 향상시킨다.
- 예: 다중 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현대 컴퓨터 시스템

멀티 태스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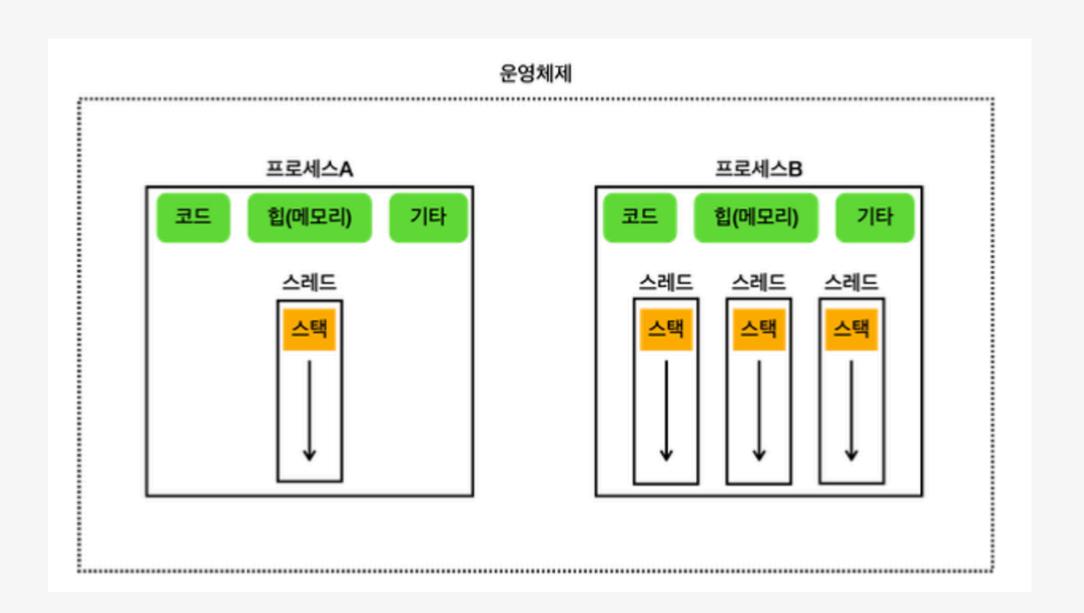
- 단일 CPU(단일 CPU 코어)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
-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CPU 시간을 분할하여 각 작업에 할당한다.
- 예: 현대 운영 체제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실행되는 환경

프로세스

- 프로세스란 메인 메모리로 이동하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.
- 각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다.
- 운영체제에서 별도의 작업 단위로 분리해서 관리된다.
- 각 프로세스는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.

프로세스의 메모리 구성

- 코드 섹션: 실행할 프로그램의 코드가 저장되는 부분
- 데이터 섹션: 전역 변수 및 정적 변수가 저장되는 부분(그림에서 기타에 포함)
- 힙 (Heap): 동적으로 할당되는 메모리 영역
- 스택 (Stack): 메서드(함수) 호출 시 생성되는 지역 변수와 반환 주소가 저장되는 영역(스레드에 포함)
- 프로세스는 스레드를 위한 실행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는 컨테이너 역할



스레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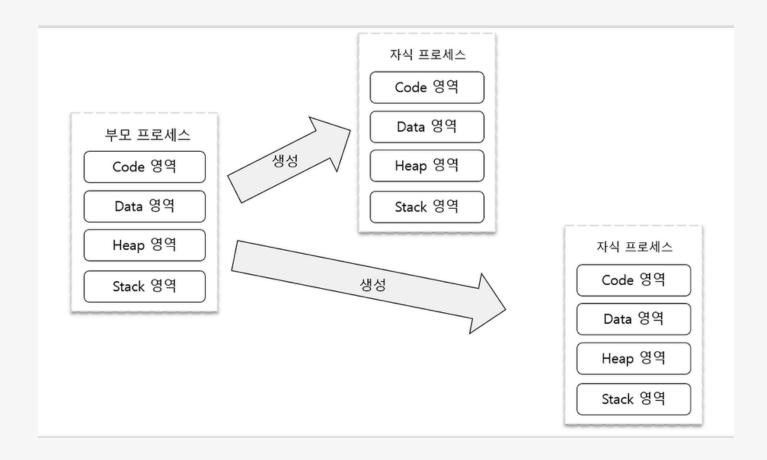
멀티 프로세스 운영체제 기반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새로운 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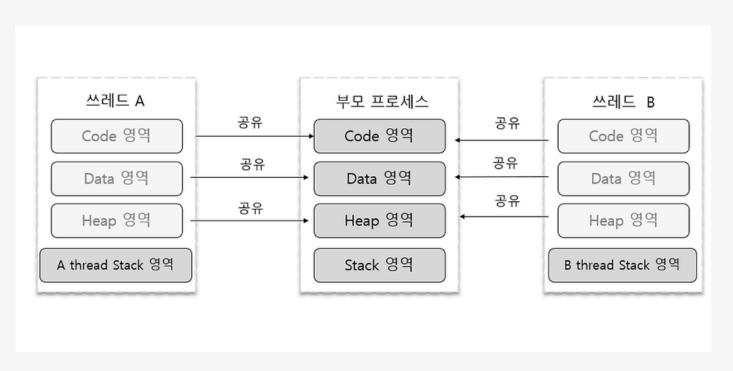
-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, 혹은 둘 이상의 실행 흐름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작업은 상당히 부담
- 많은 수의 프로세스 생성은 빈번한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이어져 성능에 영향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스레드

스레드

-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개의 실행 흐름을 두기 위한 모델이다
- 스레드는 프로세스처럼 완벽히 독립적인 구조가 아니다. 스레드들 사이에는 공유하는 요소들이 있다.
- 스레드는 공유하는 요소가 있는 관계로 컨텍스트 스위칭에 걸리는 시간이 프로세스보다 짧다.

스레드





메모리 구조 관점에서 본 프로세스와 스레드

프로세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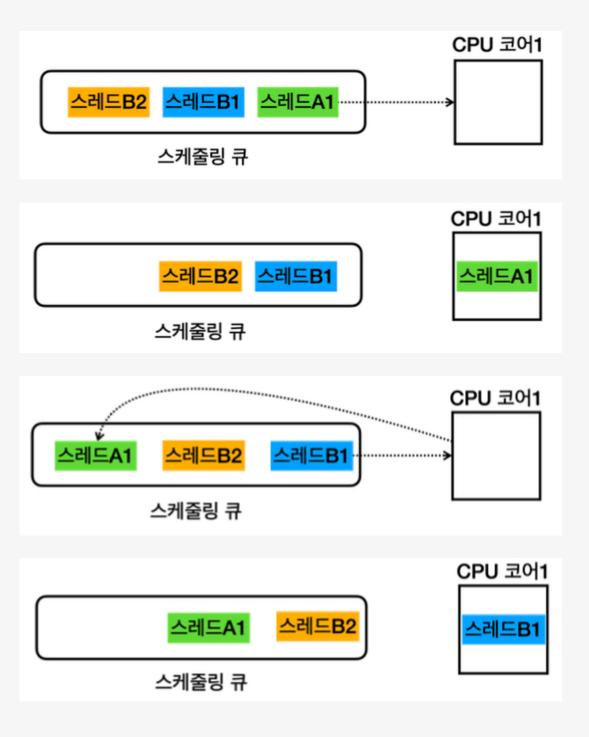
-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부모 프로세스와 독립적
-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IPC라는 메커니즘이 필요

스레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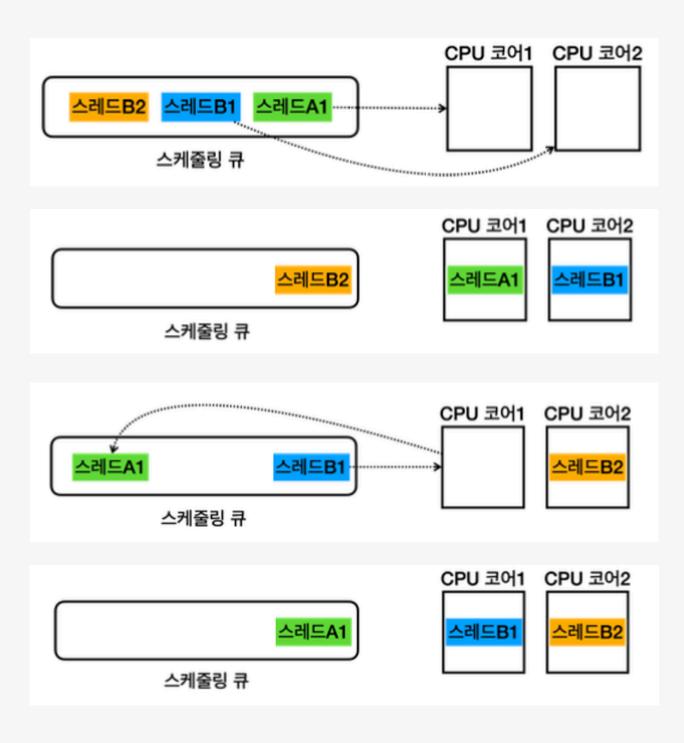
- 같은 프로세스의 코드 섹션, 데이터 섹션, 힙(메모리)은 프로세스 안의 모든 스레드가 공유
- 각 스레드는 자신만의 개별적인 스택을 갖고 있다. 다른 스택에 접근할 수 없다.

스레드와 스케줄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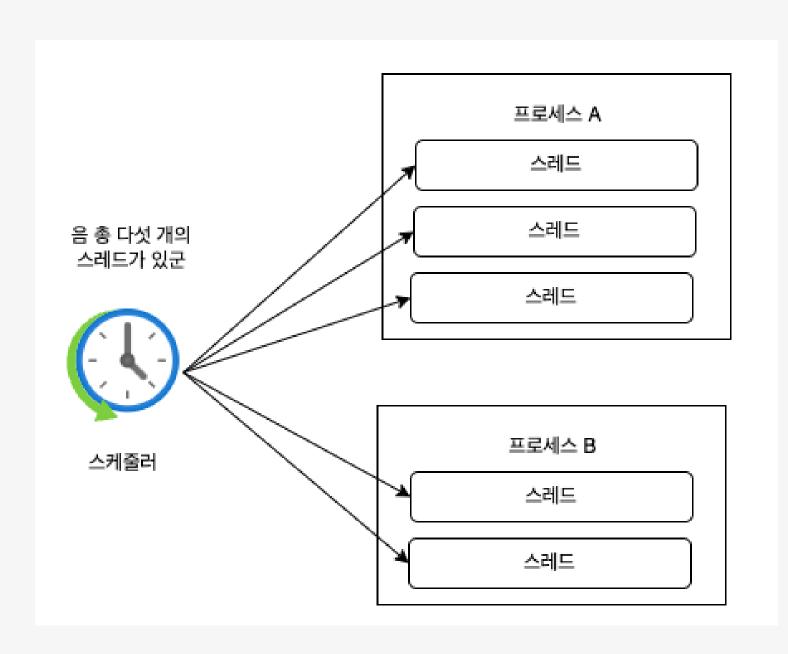
단일 코어 스케줄링



멀티 코어 스케줄링



컨텍스트 스위칭



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칭

- 그림을 보면 프로세스 B안에 두 개의 스레드가 존재한다.
- 이 둘은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존재하므로 별개의 스레드가 아니다.
- 이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컨텍스트 스위칭을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 한다.

프로세스 컨텍스트 스위칭

- 서로 다른 프로세스 내에 존재하는 스레드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컨텍스트 스위칭을 의미
-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하는 영역이 없다.
- 따라서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칭에 비교해서 속도가 느리다.

스레드 생성

Thread 상속

```
public class StartTest1Main {
   public static void main(String[] args) {
      CounterThread thread = new CounterThread();
      thread.start();
   static class CounterThread extends Thread {
      @Override
      public void run() {
         for (int i = 1; i <= 5; i++) {
            log("value: " + i);
            try {
               Thread. sleep(1000);
            } catch (InterruptedException e) {
               throw new RuntimeException(e);
```

Runnable 구현

```
public class StartTest2Main {
  public static void main(String[] args) {
     Thread thread = new Thread(new CounterRunnable(), "counter");
     thread.start();
  static class CounterRunnable implements Runnable {
     @Override
     public void run() {
        for (int i = 1; i <= 5; i++) {
            log("value: " + i);
            try {
               Thread. sleep(1000);
            } catch (InterruptedException e) {
               throw new RuntimeException(e);
```

Thread 상속 vs Runnable 구현

Thread 클래스 상속 방식

Runnable 구현

장점

• 간단한 구현: Thread 클래스를 상속받아 run() 메서드만 재정의하면 된다.

단점

- 상속의 제한: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경우 Thread 클래스를 상속 받을 수 없다.
- 유연성 부족: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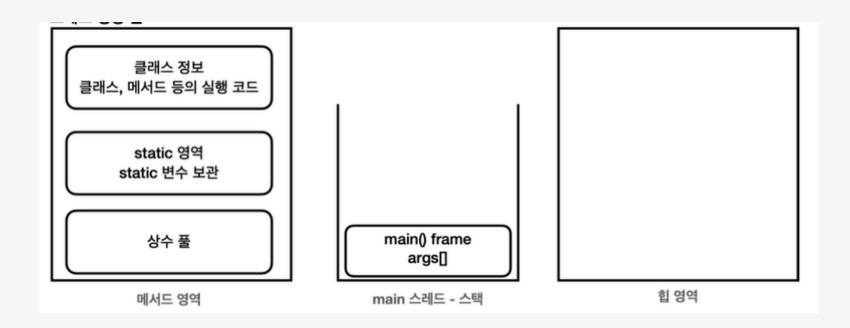
장점

- 상속의 자유로움: Runnable 인터페이스 방식은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아도 문제없이 구현할 수 있다.
- 코드의 분리: 스레드와 실행할 작업을 분리하여 코드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.
- 여러 스레드가 동일한 Runnable 객체를 공유할 수 있어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.

단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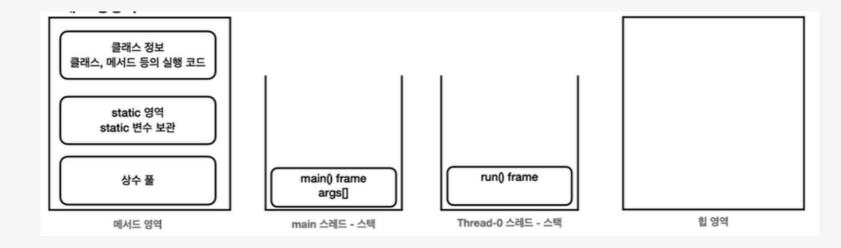
• 코드가 약간 복잡해질 수 있다. Runnable 객체를 생성하고 이를 Thread 에 전달하는 과정이 추가된다.

스레드 생성 전, 후



스레드 생성 전

- 자바는 실행 시점에 main 이라는 이름의 스레드를 만들고 프로그램의 시작점인 main() 메서드를 실행한다.
- main 스레드는 자바가 만들어주는 기본 스레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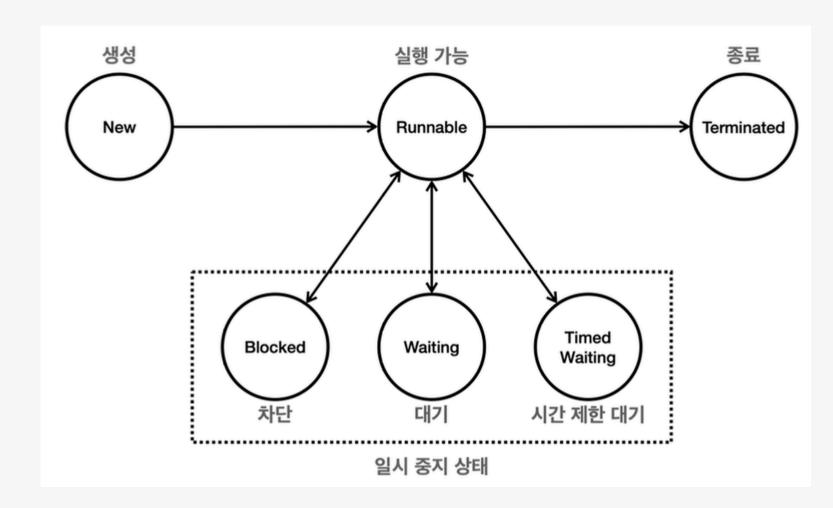


스레드 생성 후

- start() 메서드를 호출하면 자바는 스레드를 위한 별도의 스택 공간을 할당한다.
- start() 메서드를 호출하면 생성된 스레드가 run() 메서드를 실행한다.
- main 스레드가 run() 메서드를 실행하는게 아니라 Thread-0 스레드가 run() 메서드를 실행
- main 스레드는 start() 메서드 호출 후 바로 다음 줄 코드를 실행한다.

스레드 생명 주기

- New (새로운 상태): 스레드가 생성되었으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.
- Runnable (실행 가능 상태): 스레드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될 준비가 된 상태.
- 일시 중지 상태들 (Suspended States)
 - Blocked (차단 상태): 스레드가 동기화 락을 기다리는 상태.
 - Waiting (대기 상태): 스레드가 무기한으로 다른 스레드의 작업을 기다리는 상태.
 - Timed Waiting (시간제한 대기 상태): 스레드가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스레드의 작업을 기다리는 상태
- Terminated (종료 상태): 스레드의 실행이 완료된 상태.



join

```
public class JoinMainV3 {
 public static void main(String[] args) throws InterruptedException {
    SumTask task1 = new SumTask(1, 50);
    Thread thread1 = new Thread(task1, "thread1");
   thread1.start();
    // 스레드가 종료될 때 까지 대기
    log("join() - main 스레드가 thread1 종료까지 대기");
   thread1.join(1000);
    log("task1.result = " + task1.result);
 static class SumTask implements Runnable {
    int startValue;
    int endValue;
    int result;
    public SumTask(int startValue, int endValue) {
      this.startValue = startValue;
       this.endValue = endValue;
    public void run() {
       log("작업 시작");
       sleep(2000);
       int sum = 0;
       for (int i = startValue; i <= endValue; i++) {
         sum += i;
       result = sum;
       log("작업 완료 result = " + result);
```

join 사용 X 결과

```
20:45:42.259 [ main] join() - main 스레드가 thread1 종료까지 대기
20:45:42.259 [ thread1] 작업 시작
20:45:42.265 [ main] task1.result = 0
20:45:44.268 [ thread1] 작업 완료 result = 1275
```

join 사용 O 결과

```
20:46:05.319 [ main] join() - main 스레드가 thread1 종료까지 대기
20:46:05.319 [ thread1] 작업 시작
20:46:07.334 [ thread1] 작업 완료 result = 1275
20:46:07.335 [ main] task1.result = 1275
```

join - 특정 시간만큼만 대기

```
// 스레드가 종료될 때 까지 대기
log("join(1000) - main 스레드가 thread1 종료까지 1초 대기");
thread1.join(1000);
log("task1.result = " + task1.result);

21:01:20.546 [ main] join() - main 스레드가 thread1 종료까지 대기
21:01:20.546 [ thread1] 작업 시작
21:01:21.562 [ main] task1.result = 0
21:01:22.553 [ thread1] 작업 완료 result = 1275
```

인터럽트

```
public class ThreadStopMainV2 {
  public static void main(String[] args) {
     MyTask task = new MyTask();
    Thread thread = new Thread(task, "work");
     thread.start();
     sleep(4000);
     log("작업 중단 지시 thread.interrupt()");
     thread.interrupt();
     log("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1 = " + thread.isInterrupted());
  static class MyTask implements Runnable {
     @Override
     public void run() {
          while (true) {
             log("작업 중");
             Thread.sleep(3000);
       } catch (InterruptedException e) {
           log("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2 = " + Thread.currentThread().isInterrupted());
           log("interrupt message=" + e.getMessage());
           log("state=" + Thread.currentThread().getState());
        log("자원 정리");
        log("자원 종료");
```

실행 흐름

- thread.interrupt() 호출 → 해당 스레드에 인터럽트 발생
- 스레드는 인터럽트 상태가 됨
- 인터럽트 상태에서 sleep() 호출 시 InterruptedException 발생
 - 스레드는 TIMED_WAITNG → RUNNABLE 상태로 변경
 - 인터럽트 상태에서 인터럽트 예외 발생 시 스레드의 인터럽트 상태는 종료됨

실행 결과

```
00:27:54.988 [
                work] 작업 중
00:27:57.995 [
                work] 작업 중
00:27:58.981 [
                main] 작업 중단 지시 thread.interrupt()
00:27:58.990 [
               main] 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1 = true
00:27:58.990 [
                work] 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2 = false
00:27:58.991 [
                work] interrupt message=sleep interrupted
                work] state=RUNNABLE
00:27:58.992 [
00:27:58.992 [
                work] 자원 정리
                work] 자원 종료
00:27:58.992 [
```

인터럽트 - isInterrupted() 사용

```
public class ThreadStopMainV3 {
 public static void main(String[] args) {
    MyTask task = new MyTask();
   Thread thread = new Thread(task, "work");
    thread.start();
    sleep(100); // 시간을 줄임
    log("작업 중단 지시 thread.interrupt()");
    thread.interrupt();
    log("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1 = " + thread.isInterrupted());
 static class MyTask implements Runnable {
    @Override
   public void run() {
      while (!Thread.currentThread().isInterrupted()) { // 인터럽트 상태 변경X
         log("작업 중");
       log("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2 = " + Thread.currentThread().isInterrupted());
         log("자원 정리");
         Thread.sleep(1000);
         log("자원 종료");
      } catch (InterruptedException e) {
         log("자원 정리 실패 - 자원 정리 중 인터럽트 발생");
         log("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3 = " + Thread.currentThread().isInterrupted());
      log("작업 종료");
```

코드 변경

```
while (!Thread.currentThread().isInterrupted()) { // 인터럽트 상태 변경X log("작업 중"); }
```

실행 흐름

- main 스레드에서 interrupt() 메서드를 호출해 work 스레드에 인터럽트를 건다.
- work 스레드는 인터럽트 상태라 isInterrupted()=true가 된다.
- while 조건이 false가 되면서 while문을 탈출한다.
- isInterrupted() 메서드는 인터럽트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다.
- 스레드의 인터럽트 상태가 true로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

실행 결과

```
01:12:20.490 [ work] 작업 중
01:12:20.490 [
01:12:20.490 [
01:12:20.490 [
              main] 작업 중단 지시 thread.interrupt()
01:12:20.490 [
01:12:20.493
              main] 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1 = true
01:12:20.493 [
              work] 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2 = true
01:12:20.493 [
01:12:20.494
              work] 자원 정리 실패 - 자원 정리 중 인터럽트 발생
01:12:20.494
              work] 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3 = false
01:12:20.494 [
              work] 작업 종료
```

인터럽트 - interrupted() 사용

```
public class ThreadStopMainV4 {
 public static void main(String[] args) {
    MyTask task = new MyTask();
    Thread thread = new Thread(task, "work");
    thread.start();
    sleep(100); // 시간을 줄임
    log("작업 중단 지시 thread.interrupt()");
    thread.interrupt()
    log("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1 = " + thread.isInterrupted());
 static class MyTask implements Runnable {
    @Override
    public void run() {
       while (!Thread.interrupted()) { // 인터럽트 상태 변경O
          log("작업 중");
       log("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2 = " + Thread.currentThread().isInterrupted());
          log("자원 정리");
         Thread. sleep (1000);
          log("자원 종료");
       } catch (InterruptedException e) {
          log("자원 정리 실패 - 자원 정리 중 인터럽트 발생");
          log("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3 = " + Thread.currentThread().isInterrupted());
       .
log("작업 종료");
```

코드 변경

실행 흐름

- main 스레드에서 interrupt() 메서드를 호출해 work 스레드에 인터럽트를 건다.
- work 스레드는 인터럽트 상태라 Thread.interrupted()의 결과는 true가 된다
 - 이때 work 스레드의 인터럽트 상태를 정상(false)으로 변경한다.
- while 조건이 false가 되면서 while문을 탈출한다.

실행 결과

```
01:27:50.819 [ work] 작업 중
01:27:50.819 [ work] 작업 중
01:27:50.819 [ main] 작업 중단 지시 thread.interrupt()
01:27:50.819 [ work] 작업 중
01:27:50.819 [ work] 작업 중
01:27:50.822 [ main] 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1 = false
01:27:50.822 [ work] work 스레드 인터럽트 상태2 = false
01:27:50.822 [ work] 자원 정리
01:27:51.828 [ work] 자원 종료
01:27:51.829 [ work] 작업 종료
```



감사합니다.